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3차모임

일시: 2004년 2월 27일 늦은5시
장소: 연세대학교



<함께> 서울로데
인하대경상대
- 15일 여학생회 영상제.

■ 참가단위 확인

■ 논의안건

- 2004년 3.8 여성의 날 투쟁 기획단 기초확정
- 3.8투쟁국 계획
- 3.8문화제
- 예산

여학생에게 전달할 날지리들!
여성의 용기 미친 권리를 여학생에게!
여성의 이종부담 180도 ←
가부장제 안에서
이종노동부담 180도
여학생에게 전달되는
이종노동부담 180도!

■ 점검사항

- 포스터 내용
- 기획단 참가단위 명의 총화
- 포스터와 팩 배포 관련(택배로 배포의 경우, 주소가 필요)

■ 결의안건

- 단위 분담금 : 4차 모임 지까지 납부.
- 4차 모임 장소결의 3/4, 4시 성산역대.

■ 4차모임(기획단 마지막 모임) 안건

- 3.8광장사업과 투쟁대회 준비 정도 확인
- 3.8문화제 준비 정도 확인
- 단위 분담금 납부 확인
- 평가모임 일정 잡기

<참가>

- 고대모임 - 하루에 3/8 모임
'대저녁집'
- 여학생 = 여자 학생회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 3/4 차 모임 (함께)
3/8의 의미 대하여
각 학교에서 쓰고
주제별 발표해서
쓰고 발표.
10부씩 써서 제출해
하루에 3/8 모임

- 고양시 사회대 - 이이강
- 과반교양
- 김레이 저녁집

- 성신여대 여위 - 이영진
- 수내기 대역나 12월 준비위원회
제안해왔고

- 차가기 계획만 가지야
- 성신야대 - 주리강
- 부스 만들자 해서 여학생으로
거리 모임을 해서
사브리 주기 때문,
가동이 비하성이 날리기
(부스 만들자 해서 준비할 것임)

- 사대 사회대
- 3/4 모임 준비, ~ 3/8 까지

- 연세대 영문학과 3/8 모임
3/4 여학생회 3/8 모임
연세대 12월 3/8 모임

>>투쟁국 계획서

■ 3·8 여성의 날 광장사업 기획안

1. 일시 및 장소

일시: 3월 6일 1시

장소: 마로니에 공원, 혹은 인사동 거리(3안으로 명동 한빛은행 앞)

2. 다른단체 일정들

무지개포럼(6일 3시), 무지개시위(7일 4시 반, 마로니에)

민주노총 3·8 여성의 날 투쟁(6일 2시, 장소는 마로니에 아니면 종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영화제

3. 광장 기초

3·8 기획단 기초와 발맞춰 감.

4. 기획

- 거리전: 현재 실업문제 및 빈곤 문제와 관련한 스티커 설문, 현재 여성실업 및 반성폭력에 관련한 현황들을 자보 및 거리전 화
- 가판 선전: 3·8 팻 배포 및 3·8 여성문화제 홍보
- 약식 집회: 앰프 등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나갈 수 있는 계기로.
- 퍼포먼스: 성신의 '종이공주 이야기' 등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 선전전: 광장 전체를 커버하면서, 구호 및 유인물, 풍선 배포, 앰프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
- 이후 다시 모여 간단한 정리집회 후 타 단위 일정에 결합할 것에 대한 고민 중.

5. 준비할 것들

- 거리전: A자 게시판, 각 단위에 이야기해서 실업문제 및 빈곤문제, 그리고 반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거리전 준비
- 가판: 책상과 의자. 안 되면 책상이라도 앰프나 확장기라도 준비.
- 약식 집회: 각 단위별로 투쟁과제 등을 담은 피켓 준비.
- 퍼포먼스: 성신여대 등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서.
- 선전전: 가판에서 풍선 배포, 유인물은 정책국에서 담당, 앰프 등 준비.
- 타 단위 일정을 파악해야 함. 집회 신고서도 준비.(투쟁국에서)

■ 3·8 여성의 날 민중운동 여성단위와의 간담회

1. 의의 및 목표

- 신자유주의 하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공격 속에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착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작업의 초벌적 작업.
- 민중운동 내 여성주의적 고민을 펼쳐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일계기로 삼는다.
- 또한 1단위 1연대에 있어 유의미한 거점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운동을 벌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2. 참가 단위

3·8 여성의 날 기획단,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시그네틱스 노조 등

3. 일시 및 장소(가)

3월 3일 노동여성 (21:00~22:00) (20여명정가능)

4. 일정

2월 마지막 주 - 각 노조 미팅 및 간담회 관련사항 확정

3월 첫째 주 - 간담회 진행(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의 삶에 관련한)

3월 8일 - 각 노조단위와의 연대투쟁(기획 중), 3월 8일 문화제에 연대발언 섭외.

>>문화국 계획서

■38여성의날 맞이 문화제

0. 문화제 제목

1. "삐삐, 웃다"
2. "삐삐와 이야기 하기"
3. "삐삐와 마주치다" *삐삐는 사랑*
4. "삐삐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5. "삐삐, 세상을 울리다"

중에서 하나를 골랐으면 합니다.

1. 기획의도

여성의 날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과 싸우는 날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폭력 앞에 이중으로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삶을 폭로하고, 여성의 투쟁이 우리 모두의 싸움임을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 가족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삶 전반을 여성의 눈으로 그려냅니다. 38 기획단 총기조에 맞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삐삐와 이야기 하기"

늘 조신하기, 단정하기 등을 강요 받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삐삐는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자유를 알려주며 그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전형적인 성별 이미지를 교란시키는 통쾌함과 자유, 이것이 삐삐가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위의 모든 존재,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동물까지도 다 친구일 수 있는 삐삐는 어른들처럼 어떠한 경계를 두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항상 드러나는 고통스러움과 문화제 자체도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삶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삐삐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마음껏 표현해 봅시다. 삐삐가 그랬듯이 여성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관계맺음을 통해 함께 해결하고,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성

□구성의 원칙

여성의 감수성이 흠뻑 묻어나는 문화제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구성에서부터 여성의 시각과 감수성을 담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하면 여성문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나하나의 여성의 시각을 담기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섭외단위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제의 의의를 충분히 해설하고 구성과정에 반영시킵니다.

3. 진행

□문화제 전체진행; 전반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섭외; 문화제에 필요한 모든 문예패들, 발언/음향 등을 섭외 총괄

□주최 캠프와 함께 문화제 만들기; 주최 캠프와 함께 할 수 있는 실무, 문화제 내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

4. master plan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1/월	2/화	3/수
	기획안 확정 구성안 논의	섭외사자		섭외완료			
4/목	5/금	6/토	7/일	8/화			
				문화제 pm6:00			

■38 여성의 날 맞이 문화제 구성안(초)

전체는 뼈뼈와 사회자와의 대화로 진행된다.

□OPENING

밝은 분위기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쉬운 문선

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

—새내기문선: 고대나 사연..

환영사, 성신 총학생회장

—뼈뼈주제가, 뼈뼈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10월 10일이 리본을 사갈것 / 영상으로 뼈뼈가 보내주기.

□1부 여성과 몸

문화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들 어둡지만, 1부는 절대 어둡지 않게 밝고 신나는... 여성의 몸은 즐거울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반성폭력 등등

퍼포(5) - 사연

문선(3) - 사연

뼈뼈&사회자 - 사연

여운단위 발언(3); 반성폭력을 중심으로 - 성대중

"누르 물제."

뼈뼈&사회자

노래공연(5) → 계속 추진.

"축의장"

□2부 여성과 일

전체노동자의 70%비정규직 노동자, 그 속에 70%여성노동자. 가사노동까지 이중부담되고 있는 현실

노동이 권리가 아니라 이쁨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똑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빼앗겨야하는 현실, 조금은 어둡게 시작해서 끝에는 결의로 끝낼 수 있게

영상(3) → 자각할 제1차.

학생단위발언(3); 여대생취업,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서두레인들래 하자서리강

문선(3)

뼈뼈&사회자

연대단위 발언(3) 사리레릭스로 고대중.

초청가수1/소풍가는 날(50)

□3부 여성과 가족

가족은 여성에게 어떤 공간인가? 가족이 여성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통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끝은 그 속에서 잘 해봐라로 끝나는데... 일부터 해피엔딩으로 맺곤하지... 진지하게 가족이라는 공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래도 문화제 끝이니까 신나게 끝나야..

영상2-만화(3) <여성일과 예속기려서 비결.>

문선(3) → 삽리.

뼈뼈&사회자

엄마와의 전화통화-집단퍼포(3)

초청가수2/이자람 or 이상은

(50)

3/8
리커강 3시정도 보일

오래부터 사리치.

비지마지 자리를 어떻게?

5일 11시 : 사리치
→ 데빌 26토.

35년
가슴
광경

>>포스터 기획안

* 시안

2004 3.8 세계 여성학날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3월4일 간담회
3월6일 광장사업
3월8일 문화제 ((6시 성신여대))



주최: 3.8 기획단
(성신여대 총학생회, 중앙대총학생회,)



□내용

(들어갈 내용 맥시멈은 아래와 같고 미니멈은 간담회와 문화제 제목을 명기하지 않는 것. 글씨 들어갈 공간을 보고 포스터 작성자가 판단하면 되겠음)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2004 3.8 세계 여성의 날

3월?일

간담회(시간 장소)

"제목"

3월6일

광장사업(시간 장소)

3월8일

투쟁대회(시간 장소)

문화제(6시 성신여대)

"빠빠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제목 미정)

주최:

3.8기획단

(명의로 총화하여 추후에 작성자에게 전달하겠음)

>>예산안

문화제	350
포스터; 국4절 4도(칼라) 2000부	40
팸; 2000개	30
풍선, 스티커	30
선전물 등(예비비 포함)	30
<hr/>	
총	450 480

>>단위 분담금

총여/총학생회	30
단대학생회	10
과반학생회/동아리/학회 단위	5
문화제 주최캠	100
yd, jydh	60

>>분담금 총화

4차 회의까지 완료하도록 합시다

계좌는 문화제 주최 캠 대표자 명의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